

유학생의 논설문 헤지 표현(hedges) 연구



최 보 선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boseonlove@gmail.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부 유학생들이 산출한 논설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hedges)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적인 함의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헤지 표현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서 선행연구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 첫째, 한국어교육 관련 헤지 표현 관련 연구는 대학원생의 학술적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치중하였으나 다양한 학습자의 다양한 글쓰기에서의 헤지 표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boosters)을 구분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은데 각 표현의 기능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논설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투영 동사, 투영 동사 복합 형식, 인식 양태 표현, 시상 표현'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외국인 유학생의 헤지 표현 사용 양상과 중간언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헤지 표현 인식과 실제 산출의 모습을 비교하여 앞으로의 교육적 처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헤지 표현, 부스터 표현, 인식적 태도, 논설문, 학술적 텍스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 이 논문은 2022년 12월 09일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공동국내학술대회 “초국적 모빌리티: 이주와 유학”에서 발표된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며,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096275)

I.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이하 학습자)들의 논설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hedges)’ 양상을 살펴보고 추후에 교육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 수집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헤지 표현은 Lakoff(1973:471)에서 ‘어떤 것을 더 혹은 덜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들(words whose job is to make things more or less fuzzy)’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제기되었고, 신명선(2006:157-158)에서 Lakoff(1973), Fraser(1975, 1980), Prince, Frader & Bosk(1982), Hübler(1983), Brown & Levinson(1987), Markkannen & Schröder(1997) 등의 연구를 살펴보고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모호하다. 명제 내용의 진리 조건을 참과 거짓으로 명확하게 규정 짓는 것을 방해하여 화자의 판단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흐리게 한다,
- 둘째, 공손성을 나타낸다. 상대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는 데에 효과적이다.
- 셋째, 양태성을 가진다. 발화 내용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헤지 표현은 화자와 필자의 입장에서 특정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목적의 학습자 중에서 특히 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는 학술적인 텍스트를 접하고 산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중급 시작 단계인 3급부터 격식적인 문체로 나타난 문어 자료 및 구어 자료를 다루게 된다. 또한 한국어 연수 과정 중 중급부터 논설문(주장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논설문 장르적 특성을 배우게 된다. 국가 및 문화마다 구어와 문어의 담화 형식이 다르므로 외국인 학습자는 목표어의 담화 형식을 언어 연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특정 장르, 특정 담화에서 사용되는 헤지 표현은 해당 언어 사용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동의하고 관습적으로 쓰는 언어적 표현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것을 별도로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내용을 학습하기 시작하는 수준의 학습자들은 헤지 표현의 의미를 온전하게 명확히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암기식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되므로 충분한 교수, 학습을 통해 내재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가 작성한 학술 텍스트(학위 논문, 학술지, 작문 등)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분석한 연구(신영주 2011; 심호연 2013; 박미영·이미혜 2018; 강수진·이미혜 2019; 윤나영 2022; 이엽·JIN XUEYAN 2022 등)가 가장 많았고¹⁾, 그 외로 교재 분석 후 학습용으로 제시할 헤지 표현 제시 방안(이아름, 2018; 하원, 2021), 외국인 학습자의 헤지 표현 목록화(이준호, 2012; 류지현, 2019 등),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 연구(임진숙, 2021 등), 헤지 표현 연구 동향 분석 연구(유인박·김한근, 2022 등), 한국어-모국어 헤지 표현 비교 연구(조은영·총니, 2022 등)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 헤지 표현 관련 연구는 보통 학위 논문에 나타난 것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이와 같은 대학원생의 학술적 텍스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학술적인 텍스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연수는 물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쓰기 영역 52, 53, 54번에서도 격식체 반말을 사용해야 하고, 특히 54번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맞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 장르를 산출해야 한다. 논설문은 학습자의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후에도 주관식 시험지 답안, 보고서 등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장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학 연수가 끝나고 학부로 입학한 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학업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기에 논설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선택하게 되었다.

논설문이라는 특정 장르의 정형화된 모습은 비슷하게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 및 학습 과정, 교사의 지도 방법, 교재 등에 따라 헤지 표현 사용 여부나 사용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논설문 자료를 분석한 후에 헤지 표현 사용 양상을 살펴본 후 추후에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한국어교육 분야로 헤지 관련 연구들이 있으나 학위 논문과 같은 학술 텍스트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학습자의 다양한 장르적 담화에 나타난 헤지 표현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인다.

먼저 신명선(2006)에서는 국어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연구하였다. 이

1) 강영란(2021)은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산출한 논설문에 나타난 메타담화표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조은영·총니(2022)에서는 동일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서 학술적 글쓰기를 쓰게 하고 그것을 번역하게 하여 동일한 주제가 모어인 중국어에서, 목표어인 한국어에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두 연구에서는 헤지 표현이 각각 메타담화표지 및 쓰기 특징 안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헤지 표현이 전체 연구의 주제가 아닌 경우는 논문 기술회시 필요한 경우에 인용한다.

연구는 여러 연구자가 정의한 헤지 표현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 기존 국어 학술 텍스트에서는 수동태와 간접 인용 등으로 헤지 표현이 유발되었다고 보았으나 실제 학술 텍스트 자료의 서론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요소가 헤지 유발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인 이준호(2012)에서도 신명선(2006)과 신영주(2011)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헤지 표현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그 후 학술 텍스트를 학습자가 직접 읽으면서 해당 헤지 표현을 찾는 인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의 인식을 처음 조사했다는 점과 한국어 헤지 표현 유형과 예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아름(2018)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및 쓰기 교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은 후 인식적 측면과 사용적 측면으로 헤지 표현 제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재는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자료이다. 따라서 교실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성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학습자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이러한 교재를 분석하고 교육적으로 접근한 부분에 의의가 있다.

박미영·이미혜(2018)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 50편을 한정하여 학위 논문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헤지 표현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인이 작성한 논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많이 나타나는 헤지 표현을 정리하였다. 이는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라도 학위 논문과 같은 학술 텍스트 작성은 어느 정도의 표현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당연히 더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강수진·이미혜(2019)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 30편을 분석하여 실제 학습자가 사용한 헤지 표현이 어떤 것인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위 논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 연구는 앞선 박미영·이미혜(2018)의 연구의 후속 연구로 볼 수 있고, 비슷한 연구 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보였던 학술 텍스트 연구에서 실제 학습자 자료를 사용하면서 이전 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한 점에 의의가 있다.

임진숙(2021)에서는 TOPIK 듣기 영역의 안내 구어 텍스트의 항목과 사용의 예를 분석하였다. 안내 구어 텍스트를 다시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청자 지향적 헤지, 명제 지향적 헤지, 청자 지향적 헤지+명제 지향적 헤지, 화자 지향적 헤지 등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문어 자료를 분석하거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비해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구어 자료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TOPIK 텍스트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성이 있고, 교육적으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의 헤지 표현 연구 경향은 문어 자료, 특히 학위 논문과 같은 학술 텍스트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자료로 헤지 표현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I. 헤지 표현

2.1. 헤지 표현의 용어 설정 및 개념

각 연구에서 의미하는 헤지 표현의 의미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고 필자 주장의 단호함을 줄이기 위한 장치’의 의미라는 점에서 비슷하나 명칭은 상이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인 유인박·김한근(2022)을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70여 편의 한국어 헤지 표현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정리한 것이다. ‘hedges’의 한국어 번역 양상, 연구 목적 양상, 한국어 모어 화자의 헤지 표현 실제 활용 양상, 비교 양상, 통번역 양상, 학습자의 헤지 표현 활용 양상, 학습자의 헤지 표현 인지 양상, 한국어교육용 헤지 표현 제시 양상, 한국어 헤지 표현 연구 동향 분석 등 여러 각도에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고 6가지의 제언을 후속 연구에 남기고 있어 최근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헤지 표현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유인박·김한근(2022:135)에서는 ‘hedge(s), hedge expression(s), hedging(s), hedging expression(s)’ 등의 용어가 ‘헤지 표현, 헤지, 헛지 표현, 헛지, 헤취, 헤지 문법 항목, 헤지 문형, 완화 표지, 완화 표현, 완화적 표현, 완충어, 완충 표현, 완충장치, 방책어, 유보, 유보어, 유보장치, 완곡 표지, 주저 표현, 애매한 태도 표지, 의미 없는 부사구, 울타리 표현, 울타리어, 디딤말’ 등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에서 사용된다고 밝혔다. 각 연구에서 헤지 표현에 관한 관점이 모두 다르므로 번역한 명칭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dges’의 여러 용어 중에서 ‘헤지 표현’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후술하겠으나 담화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쓰는 특정한 표현은 어휘적으로, 통사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기에 해당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헤지 표현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명확하게 의미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언급하거나 자료에 나타난 특성을 정리하는

것에 그쳤다. 명시적으로 개념을 제시하기보다 구어나 문어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앞세워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을 예로 들어 제시하는 것으로 개념을 소개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와 같이 헤지 표현은 연구자마다 혹은 담화의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범위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헤지 표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1장에서 Lakoff(1973)가 헤지 표현을 ‘어떤 것을 다소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신명선(2006:154-157)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의 정의를 정리하고 있어 그것을 참고하여 이후 국어 및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내용을 더하여 헤지 표현의 정의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행 연구의 헤지 표현 정의

연구	정의
Lakoff(1973)	어떤 것을 더 혹은 덜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들
Fraser(1975, 1980)	전체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한 화자의 논평을 한정하는 것, 발화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적대심이나 귀에 거슬림 등을 완화하는 표현
Prince, Frade & Bosk(1982)	논평을 완화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것(명제 내용, 화자의 논평으로 구분)
Hübler(1983)	청자의 수용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합의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
Brown & Levinson (1987)	체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Markkannen & Schröder(1997)	정보, 필자의 태도 완화소 / 작가의 태도를 감추는 것 / 표현된 것의 책임에 대해 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Hyland(1994)	필자가 명제를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제시할 때 사용되는 수단으로 인지적으로 불확실한 것
신명선(2006)	모호성 / 공손성 /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신영주(2011)	필자가 단언하지 않고 가능한 반박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이준호(2012)	필자가 자기 주장의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분명히 검증되지 않은 제안에 조심성을 더하기 위하여, 혹은 확신이 있더라도 이를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도적 언어적 장치
강수진·이미혜(2019)	학술 텍스트에서 저자가 학술 공동체인 독자들에게 인정 받고 체면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 주장을 서술할 때 조심성을 더하여 완곡하게 전달하는 표현
임진숙(2021)	화자가 공손성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여러 가지 전략

연구자마다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반복, 강조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헤지 표현이란 말이나 글에서 화자, 필자의 강한 명제적 내용, 태도를 숨겨 체면 손상을 줄이고 청자, 독자에 대한 조심성을 높여 공손함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2. 헤지 표현의 분류

헤지 표현은 연구자마다 분석 기준과 분류 방법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고 사용 양상을 살피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분석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헤지 표현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신명선(2006), 신영주(2011), 이준호(2012), 박미영(2016), 류지현(2019) 등에서 분류 및 제시한 헤지 표현을 목록화한 것이다.

〈표 2〉 신명선(2006)의 소논문 서론의 헤지 표현

구분	기능		헤지 표현
명제 내용 판단 유보	① 가능성과 추측		•수, -겠-, 아마도, 듯하다, 아마도, 어쩌면, 은/는, 만, 질문하기 등
	② 한정		•거의, 주로, 크게, 비교적, 큰, 깊이 있게, 그리, 다소 등
판단 유보	명제 내용에 대한 필자의 판단 유보	① 일반화의 방지 (전체-부분)	•중의 하나, 한, 일종의 등
		② 드러내기-숨기기 (주체화-객체화)	•주체화: 연구자(필자), 나는 - 생각하다, -(으)ㄹ 것이다, 다소 등 •객체화: 흔히, -고 알려져 있다, - 때문에, 거의 등
		③ 전제와 함축	•부정 표현: -지 않다, 역시 -지 못하다, -(으)ㄹ 수 없다
수행성 약화			•곤란하다, 무리가 있다, 필요성을 제기한다, 필요하다, 우려가 있다 등

신명선(2006)은 한국어의 헤지 표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헤지 표현의 개념 정리 및 학술 텍스트(학술 잡지의 소논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살펴본 후 유의미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법 범주들로 헤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헤지를 기능적, 화용적 관점에서 언어 사용 전략으로 볼 경우 헤지 표현 목록을 작성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들에서도 위의 표에 제시된 헤지 표현이 헤지 표현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분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조사는 한정을 나타내지만

완화의 의미가 약하여 제외되어야 하며, 질문하기는 학위 논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표 3〉 신영주(2011)의 학위 논문 서론의 헤지 표현

구분		헤지 표현
부가적 완화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호: 거의, 다소, 비교적, 어느 • 부정(否定)칭: 무슨, 무엇, 어느, 어떤 • 불확실: 아마(도), 어쩌면
내용 중심 완화 표지	정확성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 -고 + 전달 동사(말하다 주장하다 하다 등) • 증거: -고 + 인지 동사(생각하다 여기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해석하다)
	필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 -(으)ㄴ/는 편이다, -(으)ㄴ/는/(으)ㄴ 것 같다, -(으)ㄴ/는/(으)ㄴ 듯하다, -(으)ㄴ/는가 보다, -(으)ㄴ 것이다, -(으)ㄴ 법하다, -(으)ㄴ 수 있다, -(으)ㄴ까 생각한다, -아/어/(으)로 보이다, -겠-, 가능하다, 가정/추측/추정하다, 의의가 있다, 짐작하다, 필요성이 있다, ‘부정 표현 + 헤지 표현’ 등 • 객관화: 본고, 본 연구, 연구자, 우리

신영주(2011:42)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판된 5개 대학교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교육 분야 석사 논문 50편, 외국인 학습자의 논문이 가장 많은 5개 대학 선정²⁾ 후 중국인 학습자의 석사학위 논문 50편, 총 100편을 대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아 헤지 표현을 목록화하였다. 분석 자료 선정에서 사전 분석 후 결론을 제외하고 ‘서론, 이론적 배경, 본론’에 헤지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으나 서론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헤지 표현이 적게 나타나 서론만 분석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Hyland(1998)의 헤지 표현 모형을 기본 틀로 하여 신명선(2006)에서 제시한 헤지 표현 목록과 한국어교육 문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헤지 표현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작성하여 위와 같은 목록을 완성하였다. 유사한 계열의 두 집단의 논문을 비교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연구 결과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전체적인 논문 헤지 표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준호(2012:277)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Hyland(1998)의 헤지 표현 목록을 단순화시켰고 분석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음을 보이는 결과들이 도출된 부분이 아쉽다.

2) 신영주(2011:28)는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서였고,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순서였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논문을 찾기 힘든 고려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 학교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이준호(2012)의 한국어교육용 학술적 헤지 표현

유형	항목	헤지 표현	예	
핵심이 되는 표현	동사 중심 표현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볼 수 있다 • -(으)ㄴ/(이)ㄴ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 -다/라고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보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보인다 • - 것처럼 보인다 • -(으)로 보이기도 한다 • -(으)ㄴ/(이)ㄴ 것으로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 소비재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알 수 있다 • -(으)ㄴ/(이)ㄴ 것으로 알 수 있다 • -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라고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춰야 함을 알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타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나타났다 • -이/가 나타났다 • - 것이 나타났다 • - 점이 나타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비중을 낮출 필요성이 나타났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다.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를 나타냈다 • -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임을 나타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라는 것을 나타낸다.
		생각하다 예상하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분석하다 고려하다 설명하다 간주하다 평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 피동형 • ‘-되다’ • -(으)ㄴ 수 있다 • -다고 할 수 있다 • -기도 하다 • -(으)ㄴ 것이다 • -게 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 소비재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으로 간주하게 된다.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유형	항목	헤지 표현	예	
	형용사 중심	가능하다 필요하다 적합하다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라고 할 수 있다 • -(으)ㄴ 것이다 • -ㄴ/ㄹ 것으로 보인다/나타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명사 중심 표현	의미 가능성 필요성 중요성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가 있다 • -이/가 있을 것이다 • -이/가 보인다/나타나다/제시되다 • -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타나다/제시되다 • -을/를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대체로 소비재의 비중이 낮게 조사되는 경향이 있었다.
부가적 표현	부사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상대적으로, 대체로, 대략적으로, 주로 • 다소, 약간, 어느 정도, 일종의, 하나의 • 그리, 거의 - 안/못 등의 부정 표현 		
	(준)정형화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만을 보자면, -을/를 고려하자면 •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외가 나타날 수 있으나, 여러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 한계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아쉬움이 남는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준호(2012)의 연구는 학습자의 헤지 표현 인식 연구와 함께 다양한 전공의 소논문을 분석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술 텍스트 작성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용 헤지 표현을 처음으로 목록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표 5〉 박미영(2016)의 소논문의 헤지 표현

Hedge	구분	기능	하위 기능	헤지 표현
내용 중심 (저자 중심)		• 명제적 내용의 차원	• 일반화의 방지,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중의 하나, 한, 일종의, 거의, 주로, 크게, 비교적, 큰, 깊이 있게, 그리, 다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약간

Hedge	구분	기능	하위 기능	헤지 표현
		• 명제를 대하는 저자의 태도 차원	• 가능성과 추측	• - 수, -겠-, 아마도, 듯하다, 대체로, 대략적으로
			• 주체화 (드러내기)	• 보다(볼 수 있다, 보이다), 알다(알 수 있다, 알게 되다), 생각하다, 예상하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분석하다, 고려하다, 설명하다, 간주하다, 평가하다
			• 객체화 (숨기기)	• -고 알려져 있다(인용 표현), 나타나다
독자 중심		• 독자와의 관계 차원	• 수행성 약화	• 곤란하다, 무리가 있다, 필요하다, 우려가 있다. 가능하다, 적합하다,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 독자와의 관계 차원	• 부정성 조절 (전제와 함축)	• 그리, 거의 - 안/못 부정 표현

박미영(2016:34)은 최근 5년 이내의 등재지에 게재된 인문학계열 소논문 200편과 자연과학계열 소논문 200편, 총 400편의 1,749,053 어절의 학술 텍스트를 분석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Hyland (1998)의 헤지 표현 분류 모형을 토대로, 신명선(2006)과 이준호(2012)의 연구 내용을 하부 기능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목록을 제시하였다. 두 학문 계열 간 헤지 표현 사용에 의미 있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선행 연구들의 표현을 재분류한 것에 의의가 있다.

〈표 6〉 이슬비(2016)의 소논문의 헤지 표현

필자 태도 표현	구분	헤지 표현
1. 평가적 태도	직접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어휘 : 새롭다, 흥미롭다, 자연스럽다, 낯설다... • 인용 동사 : 설명하다, 하다, 말하다, 보다, 생각하다... • 논리, 해석 동사 : 시키다, -기 때문이다/때문에..., 나타나다, 관련되다/관련하다...
	간접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도 조절 : 가장, 매우, 많이..., 구체적, 일반적... • 수량 조절 : 가능성이 크다/높다/빈번하다, 필요가 있다/없다/많다, 필요가 많다/있다/없다... • 초점 조절 : N 중 하나, 일종의, 다소, -지 않다...

필자 태도 표현	구분	헤지 표현
2. 인식적 태도	자기 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영 동사 : 보이다, 보다, 생각하다... • 자기 투영 복합 구성 : -(으)ㄹ 수 있을 것이다, -을/를 알 수 있다, -다/라고 할 수 있다...
	인식 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양태 표현 : -(으)ㄹ 수 있다, -는 것이다, -(으)ㄹ 것이다...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표현 : -고 있다, -았/었-, -던, -게 되다...
3. 상호작용적 태도	텍스트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선후 안내 : -고자 하다, 다음과 같이/같은/같다..., -듯이 • 접속 : 이러한, 이는, 또... • 독자 유도 : 가?, 가., 까?, 까..., 여기서, 점이다...
	논리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 : -기도 하-... • 반박, 전제 : -더라도, -다..., -다는 점에서 • 부정, 변별 : -이/가 아니라..., 보다, 그러나, 비해서) • 반기대 : 아직, 오히려... • 심화 : 뿐만 아니라...

이슬비(2016:56)는 담화적 관점에서 ‘필자 태도’(stance)를 어떤 개념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새로운 태도 관련 개념은 문법 범주에 국한된 양태 범주와 달리,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 문법 범주의 표현들을 한 개념 아래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슬비(2016:137-165)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산출한 학술적 텍스트와 외국인 학습자가 산출한 학술적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헤지 표현의 언어적 범위를 여러 언어적 층위에 걸친 것으로 보고 어휘, 문법, 담화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 것과 장르 중심 언어 연구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7〉 류지현(2019)의 TV 뉴스 기사 및 신문 지면 기사의 헤지 표현

구분	헤지 표현	
어휘·문법적 표현	양태성을 가진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필요성], 정도, 의미, 의의, 가능성, 중요성, 경향, 우려, 무리, 감(感)
	판정 의미의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하다, 예상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추측하다, 추정하다, 짐작하다
	긍정·부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란하다, 가능하다, 적합하다,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필요하다, 힘들다, 낫다
	관형사 및 관형형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일종의, 어느, 어떤, 약

구분	헤지 표현
양태 부사 및 부사구, 부사적 표현	• 비교적, 아마(도), 거의, 주로, 크게, 그리, 다소, 상대적으로, 약간, 대체로, 그다지, 조금, 좀, 대략, 혹시나, 솔직히, 설마, 특히, 일반적으로
양태 의미의 선어말·연결·종결 어미 표현	•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ㄴ/는/(으)ㄹ 듯하다, -(이)라고, -(ㄴ)다고, (으)ㄴ/는 편이다, (으)ㄴ/는/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 것이다, -(으)ㄹ 수밖에 없다, -(으)ㄹ 텐데, -(으)ㄹ 만하다, -을/를 나타내다, -(으)로 나타내다, -(으)로 보다/ 보이다, -아/어 보이다

류지현(2019:35)은 TV 뉴스 기사와 신문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준호(2012:285)에서 제시한 ‘한국어 헤지 표현 표면형 분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헤지 표현 분류표를 만들었다. 이때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개별 문법과 표현을 위주로 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이준호(2012)가 제시한 조건, 방법론 언급 등의 글쓰기 전략에 해당하는 ‘전략적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둘째, 관형사 및 관형사형 항목을 추가하였다. 자료 수집에 나타난 항목에는 이준호(2012)가 제시한 분류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 헤지 표현 중 용례가 지나치게 지엽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신영주(2011:42)에서 제시한 ‘본고, 본 연구, 연구자’ 등은 학술 텍스트 내에서만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특수한 표현이므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뿐만 아니라 일반 목적 학습자에게까지 교육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헤지 표현 교육 대상이 될 학습자의 구체적 수준까지 논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상기한 연구의 헤지 표현 분류 기준과 목록은 연구자들이 자료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분석 기준은 3장에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서 학문 목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가 산출한 논설문 40편을 대상으로 총 753 문장, 27,671 어절의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³⁾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논설문은 학술 텍스트에 해당한다. 학습자들은 대학 교육의

3)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논설문’은 단순히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을 갖추며 주장과 근거를 나열하는

학습 과정 중에 보고서, 발표문, 토론문, 주관식 시험 답안지 등에서 교재나 강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펼치면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글을 써 내야 한다. 그 중에서 자신의 주장과 그에 맞는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는 글인 논설문은 학습자들이 많이 읽고 쓰게 되는 글의 유형 중 하나이므로 학습자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도 용이하여 본 연구에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학기 정규 시험에서 산출한 논설문을 분석한다.⁴⁾ 학습자의 자료 수집의 경우 모르는 어휘 및 문법을 사전, 인터넷 검색, 한국인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의 내재적 언어 사용이 아닌 외부 변인의 영향을 받아 산출된 자료는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일체의 언어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험 상황에서 산출한 자료를 수집하였다.⁵⁾

이 수업은 학문 목적의 글쓰기를 연습하는 수업이고, 일주일에 1번, 2시간씩 진행되었다. 학기 시작 후 논쟁형 논설문 1-3(동물원 폐지 찬반, 한국식 서열 문화 존중 찬반,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발표문, 요약문을 연습하고 8주차 중간시험에 논쟁형 논설문의 장르로 시험을 실시하였다.⁶⁾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중간시험 이전에 논쟁형 논설문의 비중을

주장하는 글이라는 의미보다 학문 목적 학습자가 대학 교육 과정 중 맞닥뜨리게 되는 학술적 텍스트라는 의미가 더 크다. 한국어 연수 과정 중 또는 대학 교육 과정 중에 있으면서 배우게 되는 학술적 텍스트에서 산출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논설문에 기대하는 구조, 주장에 따른 근거의 논리성보다 적절하게 헤지 표현을 사용하여 학술적으로 글을 풀어내고 있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 4) 본 연구의 자료는 시험 실시 직후 학습자들에게 해당 시험의 텍스트 자료가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서 활용될 것임을 알리고, 자료 사용 동의를 얻어 사용한 것이다.
- 5) 신영주(2011)는 한국인과 중국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마지막 결론(2011:79, 81)에는 '학교별 완화 표지의 사용 빈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한국인 논문에서 완화 표지 빈도가 높았던 학교는 중국인 논문에서도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석사 논문을 작성할 때 본교 논문을 참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위 논문이 일반적으로 다른 학위 논문을 참고하거나 동료나 지도 교수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학습자의 산출물이 학습자 스스로 생성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학위 논문이라는 중요한 텍스트는 당연히 지도 교수, 한국인 동기, 선후배 또는 인쇄소 등에서 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표현이 누군가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더 좋은 표현을 제시한다면 쉽게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해당 연구의 연구자의 언급과 같이 학습자가 '모범글'로 보이는 모교 선배의 논문을 참고하였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스스로 산출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변인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순수한 학습자 산출물-그것이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을 수집할 때 학습자의 중간언어적 양상을 관찰하면서 더 유의미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6)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II)' 쓰기 영역 54번의 '주어진 주제에 맞게 글쓰기 유형'을 연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논설문 장르에 익숙하다. 논설문이 주장과 근거만을 펼치는 글이라는 점에서

많이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고 중간시험의 장르도 논쟁형 논설문(동물 실험 찬반)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기말시험 이전에는 문제해결형 논설문 3편을 연습하고 문제해결형 논설문 장르로 시험을 실시하였다.⁷⁾ ‘논설문’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펼치면서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주장하는 글이다. 비단 TOPIK 시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 과정 중에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써 내야 하는 학술적 상황이 많으므로 학습자들은 논설문 장르를 연습하는 것이 학술적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중요하다.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목표어인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학습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학술적인 상황에서 산출해 내야 한다면 더 큰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르를 충분히 연습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비(2016:29-30)는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을 빌리자면 본 연구의 논설문은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학술적 텍스트의 형식을 지향하는 학습용 학술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은 엄격한 학술적 구조와 양식에 맞출 수는 없으나 각 학습자들이 지향하는 학술적 텍스트를 완성하기 위해 연습의 일환으로 산출하는 텍스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쓰는 텍스트의 격식성과 학술적이라는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슬비(2016)를 제외하고 한국어 헤지 표현 관련 연구에서 통제된 상황에서의 학습자 산출물을 연구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헤지 표현 사용 및 특정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으므로 학습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한강우(2022:203)는 TOPIK 쓰기 관련 연구 중에서 ‘도입-전개-마무리’ 형식을 가지는 54번 문제 유형을 다룬 연구 중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먼저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구성 방식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경향은 현장의 교사와 학습자들의 쓰기 학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7) 학기 정규 시험인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장르는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미리 공개되고 주제는 시험 당일 공개되어 학습자들은 주제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없고 시험 중에도 사전, 스마트폰 사용, 질문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매주 수업은 학습자의 학술적 텍스트 쓰기 향상을 위하여 뉴스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 신문 기사, 학술 잡지 텍스트 등을 함께 활용하였고, 학습자는 장르적 특성 및 필수 사용 어휘, 문법, 표현 등을 학습한 후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개요를 짜고 원고지에 글을 작성한다. 분량은 800-1,000자이고 1,000자 이상 작성도 가능하다. 글 작성 후 일주일 후 수업까지 연구자가 필수적으로 1차 피드백을 서면으로 진행하고 원고지를 돌려줄 때 서면 피드백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질문을 받거나 피드백의 중요 내용을 강조하였다.
- 8) 텍스트에 나타나는 헤지 표현은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간시험 때의 논쟁형 논설문과 기말시험의 문제해결형 논설문을 같이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쟁형 논설문만 분석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글쓰기 양상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한국어 연수 과정부터 학부 입학 후까지 다양한 학술적 텍스트를 읽고 쓰면서 습득, 학습하게 된 글쓰기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중간언어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설문은 모두 40명의 다국적 학습자들에게서 수집한 것이다⁹⁾. 학습자의 국적은 중국 28명, 일본 7명, 캄보디아 3명, 몽골 1명, 키르기스스탄 1명이고, 성별은 남성 11명, 여성 29명이었다. 이 수업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외국인 학습자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수업의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이 수업을 듣기 위한 선행 과목 수강이나 특별한 조건은 없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은 4년제 대학 입학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TOPIK 3급 수준이고¹⁰⁾ 한국에서 한국어 연수 과정을 끝내고 입학하거나 1학기 또는 2학기 교환학생이 이 수업을 듣는다.

3.3. 분석 기준

본 연구는 <표 6>을 큰 틀로 하여 일부 기준을 적용하여 학습자 문어 자료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표 6>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나 자료 분석 과정 중에 보이는 특이점이나 다른 형태의 사용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내용 전개 과정 중 함께 기술한다. 그리고 고려할 만한 사항은 2개 이상의 헤지 표현이 결합하여 나타난 ‘복합 형식(chunk) 헤지 표현’인데 ‘생각할 수 있다, 바람직해 보인다’ 등이 그것이다. 이준호(2012:289-290)에서는 이러한 복합 형식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류지현(2019:35)에서는 복합 형식 헤지 표현을 하나의 개별 표현으로 판단했을 때 헤지 표현의 종류가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사용 빈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 형식 헤지 표현에 나타나는 것들을 각각의 헤지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고 보았으며, 본 연구도 류지현(2019)의

9) 이 수업의 원래 수강생은 46명이었으나 시험 포기, 시험 분량 미달, 논설문의 완결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 주제 이탈 등의 경우는 모두 제외하고 최종 40명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10) 실제 TOPIK 급수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도 있었으나 학교 자체 시험을 통해 입학한 경우나 예체능 전공 계열의 경우는 TOPIK 급수가 없거나 초급(1급, 2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등급을 명확하게 나누어 등급별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자 글쓰기에 나타난 헤지 표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학습자의 등급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 분석 후 등급별 구분과 관련하여 언급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기술하기로 한다.

의견에 동의하여 복합 형식 헤지 표현은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는 ‘판정 의미의 동사’인 ‘바람직하다’와 ‘양태 의미의 선어말·연결·종결 어미 표현’인 ‘-아/어 보이다’라는 두 개의 헤지 표현이 결합한 것이고, 텍스트에서 헤지 표현이 2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도 그 기준에 맞추어 복합 형식 헤지 표현을 따로 구분한다. 즉, ‘못하게 되었다’의 경우, ‘-게 되다’와 ‘-았/었-’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헤지 표현으로 보이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를 분석에서 구분해야 한다.

- (1) 몸이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CHN02)¹¹⁾
- (2) 그러므로 우리가 쓸 약이나 화장품 등을 동물이 쓰고 연구나 실험하는 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JPN01)
- (2) 그러므로 우리가 쓸 약이나 화장품 등을 동물이 쓰고 연구나 실험하는 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이다.
- (3) 공간의 이러한 사회적, 인식적 성격에 주목한다면, 〈북찬가〉는 공간에 따른 주체의 인식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이끄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슬비, 2016:103)

(1)과 (2)에 모두 ‘-(으)ㄴ 수 있다’ 문형이 사용되었으나 (1)은 헤지 표현이 아니고 (2)는 헤지 표현이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헤지 표현은 화자, 필자의 강한 주장이나 태도를 숨겨 체면을 유지하고 청자, 독자에게 공손함을 나타내는 전략이다. (1)은 몸이 아픈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의 가능성을 서술하는 것이고 여기에 필자의 담화적 태도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본다.¹²⁾ (2)와 (2)’을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2)’은 필자의 동물 실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단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칫 독자에 대한 조심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 공손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2)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완화를 위하여 ‘-(으)ㄴ 수 있다’는 문형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화자 태도에 대한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므로 헤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3)의 예문은 선행연구에서 가져온 것인데 (1)과 (2)의 비교를 도와준다. 이슬비 (2016:104-105)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근본적 의미를 Halliday의 ‘projection(투영)’에

11) 학습자 예문을 제시할 때는 국적과 순번을 붙였다. 학습자의 국적인 중국, 일본, 캄보디아, 몽골, 키르기스스탄을 CHN, JPN, CAM, MNG, KGZ로 표기하고 순번은 01부터 시작한다. ‘CHN02’는 중국인 학습자 중 순번 두 번째인 학습자가 산출한 자료라는 의미이다.

12) 이러한 문장이 무조건 헤지 표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후술하겠으나 헤지 표현은 텍스트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명제에 대한 가능성, 추측 표현 등을 제외하고, 필자의 담화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을 헤지 표현이라고 본다.

대한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투영을 통해 내용이 되는 명제는 뒤에 붙은 절의 ‘content(내용)’의 표현으로서 정립되며 후행하는 술어에 따라 정신적 사고의 내용이나 동사적 과정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Halliday & Matthiessen, 2014:440). 또한 이렇게 투영하는 필자와 투영되는 필자의 출처를 분리하게 되면 필자 자신의 명제를 타인인 것처럼 인용하는 ‘자기 투영’이 다성적(polyphonic) 필자를 상징함으로써 인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쓰기 산출물에서 특히 학술적 텍스트 산출물에서는 이러한 헤지 표현의 적절한 사용이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의 완성도를 높이므로 학습자들은 한국어 글쓰기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Hyland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할 때 참고할 수 있다.¹³⁾

〈표 8〉 헤지 표현 기능 및 주요 구현 방식 정리¹⁴⁾

Content Oriented		Reader-Oriented
Accuracy-Oriented	Writer-Oriented	
Hedges propositional content	Hedges writer commitment	Hedges assertiveness
Attribute type Precision Adverbs: Content disjuncts Style disjuncts downtoners Reliability type Epistemic lexical verbs Modal verbs Epistemic adjectives Epistemic nouns Content disjunct adverbs Limited knowledge	Epistemic lexical verbs: Judgmental Evidential Impersonal expressions: Passive voice Abstract rhetors “empty” subjects Modal verbs Thematic epistemic device Attribution to literature Impersonal reference to: Method Model Experimental conditions	Epistemic lexical verbs: Judgmental Deductive Personal attribution Personal reference to: Methods Model Assume shared goals Hypotheticals conditionals <i>would</i> Involve Reader Direct questions Refer to testability

13) Hyland는 ‘담화(discourse)’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있고 헤지 표현 관련 연구(1996, 1998, 2005)도 꾸준히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기술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에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습자의 실제 자료 분석을 위한 기준 설정에 있어 기존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계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헤지 표현 관련 선행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의 연구가 기준이 될 수 있다.

14) ‘Table 2. Summary of Hedging functions and principal realization devices’ (Hyland, 1996:450)

〈표 8〉은 Hyland(1996:450)의 그림을 표로 제시한 것으로 헤지 표현을 몇 개로 나누는 것인데 가장 큰 구분은 ‘명제 지향적 헤지(Content-oriented hedges)’와 ‘독자 지향적 헤지(Reader-oriented hedges)’이다. 명제 지향적 헤지는 다시 ‘정확성 지향적 헤지(Accuracy-oriented hedges)’와 ‘필자 지향적 헤지(Writer-oriented hedges)’로 나눌 수 있고, 정확성 헤지는 다시 ‘상세화 헤지(Attribute hedges)’와 ‘진실성 헤지(Reliability hedges)’로 구분한다.¹⁵⁾ 이러한 구분은 Hyland(1996)가 텍스트 자체에 대한 필자와 독자의 거리를 인식하고 동시에 명제에 대한 모호성(헤지 표현 관련), 명확성(부스터 관련 표현)의 태도를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This implies that the extent to which the endophyte might effect N metabolism under field conditions could also depend considerably upon other interacting factors. (Hyland, 1996:436)

이는 내생식물이 현장 조건에서 N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다른 상호작용 요인에 상당히 의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5) From our investigations we conclude that the data of Wydrzynski et al can be seen in a differnet light when the adverse effects of Cl deprivation are seen in conjunction with. (Hyland, 1996:436)

우리의 조사에서 Cl 박탈의 역효과를 볼 때 Wydrzynski 등의 데이터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Hyland(1996:436-437)에서 (4)는 명제 지향적 헤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텍스트가 진술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5)는 독자 지향적 헤지를 나타내는데 객관적 범주에서 제시되는 명제는 ‘독자 고려(reader considerations)’로 분명하게 헤지될 수 있다(hedged)고 설명한다. 또한 헤지 표현은 필자가 독자의 승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장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예상하고 독자가 명제를 수용할지, 명제를 부정할지 등에 대한 모든 가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필자는 명제 내용을 신뢰하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불확실성, 주의, 대인관계 요소(uncertainty, caution, interpersonal factors) 등을 방해하는 헤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예들에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명제 내용을

15) 〈표 8〉의 용어 번역은 김강희(2017:40)를 참고하였고 해당 연구의 ‘헤지’는 본 연구의 ‘헤지 표현’과 같은 의미의 용어이다.

불확실하게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한 어휘(imply) 및 문법 표현(might, could also, can be seen), 텍스트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명제 논의와 관련한 표현(our investigations we conclude, different)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앞선 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최근 연구로 올수록 과거보다 헤지 표현들이 세부적으로 구분됨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이어 Hyland(1998:350)에서는 헤지 표현과 함께 '부스터 표현(booster(s))'을 보여주고, 헤지 표현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 Hedges and boosters are communicative strategies for increasing or reducing the force of Statements. Their importance in academic discourse lies in their contribution to an appropriate rhetorical and interactive tenor, conveying both epistemic and affective meanings. That is, they not only carry the writer's degree of confidence in the truth of a proposition, but also an attitude to the audience. Boosters, such as clearly, obviously, and of course, allow writers to express conviction and assert a proposition with confidence, representing a strong claim about a state of affairs. ... 헤지와 부스터는 진술의 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의사소통적 전략이다. 학술적 담화에서의 둘의 중요성은 적절한 인식론적 의미와 정의적 의미를 모두 전달하는 적절한 수사적, 상호작용적인 것에 있다. 즉,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작가의 확신뿐만 아니라 청중의 태도도 지니는 것이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물론'과 같은 부스터는 작가가 확신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하고 명제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상황에 대한 강한 주장을 나타낸다.

Hyland(1998)에서는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을 모두 필자(또는 화자)의 담화적 태도를 나타내는 의사소통적 전략임을 인정하면서 담화에서의 둘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즉, 부스터 표현은 작가가 상황에 대해 강한 주장,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것으로 필자, 화자의 체면 또는 독자, 청자에 대한 공손성 등을 나타내기 위해 주장을 약화하거나 명제를 모호하게 제시하는 헤지와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헤지와 부스터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해당 표현들이 담화 상황에서 필자가 공손성이나 체면 등의 어떠한 담화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필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yland(1998)의 의견에 동의하여 헤지 표현을 필자의 주장을 약하게 완화하는 표현들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표현들만 헤지 표현으로 분석한다.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도 김설연·이염(2022), 장아남(2022)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부스터 표현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설연·이염(2022)에서는 부스터 표현을 헤지 표현의 강화 표현으로 보고, 한중 커머스 라이브에 나타난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한국어 부스터 표현을 ‘부사, 명사, 관형사, 형용사, 조사, 표현’ 등으로 나누었다. 장아남(2022)에서는 학술대회 논문발표 담화에 나타난 입장 표현(stance marker)에 대해 연구하였다. 크게 인식적 표현과 태도적 표현으로 나누었는데 인식적 표현을 다시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학습자의 보다 정확한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Hyland(2005:173, 175-177)는 지금까지의 헤지 표현 관련 연구는 텍스트가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이 연구에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입증한 것을 실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적 방법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필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태도(Stance)’와 필자가 독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주장에 따라 끌어당기며 담화 참여자로 포함된 필자 자신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참여(engagement)’를 강조하였다.

(7) ... Results and interpretations need to be presented in ways that readers are likely to find persuasive, and so writers must draw on these to express their positions, represent themselves, and engage their audiences.

... (텍스트의) 결과와 해석은 독자에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따라서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청중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Hyland(2005:177)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도와 참여는 매우 맥락적인 문제이므로 텍스트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분명하게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가 어떤 담화 참여자에게는 (텍스트 의미 이해에 필요한 개념의) 상당한 부재(significant absence)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아래의 (8)과 같이 독자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일부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분석 기준과는 다른 항목으로 묶인다고 보므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자 한다. 독자를 고려한 표현도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되므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그 근거는 세 개 있기 때문에 소개할 것이다. (JPN01)

결국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텍스트에서 적절한 맥락에 맞게 필자의 의견 및 주장을 독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헤지 표현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텍스트에서 각 언어 표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의 기준들을 모두 받아들여 한 텍스트에서 다양한 헤지 표현을 찾기보다는 특정 기능을 하는 헤지 표현들을 골라 살펴보고 그것들이 학습자 텍스트에서 어떤 중간언어적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언어 표현이 하나의 헤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맥락에 따라 여러 개의 헤지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것임을 상정한다면 범위를 좁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6>의 이슬비(2016:102-124)의 내용 중 일부분으로 범위를 줄여 ‘인식적 양태’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¹⁶⁾ 선행연구들에서도 헤지 표현의 여러 기준들 중에서 가장 모호하게 나타난 부분이 양태 부분이었고, 투영 동사를 사용한 투영 복합 구성의 해석도 맥락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학습자 텍스트에서 이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 9> 인식적 태도 관련 헤지 표현 분석 기준

구분	헤지 표현
① 투영 동사	•보이다, 보다, 생각하다...
② 투영 동사 복합 구성	•-(으)ㄹ 수 있을 것이다, -을/를 알 수 있다, -다/라고 할 수 있다...
③ 인식 양태 표현	•-(으)ㄹ 수 있다, -(으)ㄹ 것이다...
④ 시상 표현	•-고 있다, -았/었-, -던, -게 되다...

<표 9>는 <표 6>의 ‘인식적 태도’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표인데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앞에서 구분한 명제에 대한 필자의 강한 태도를 나타내는 부스터 표현으로 판단되는 문형인 ‘-(으)ㄹ/는 것이다, -(으)ㄹ 수밖에 없다’ 등은 제외한다. 명확한 의견을 드러내는 ‘분석하다, 주장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당연하다, 명확하다, 물론이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등의 명제 내용의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들과 이 표현들의 부사형도 강조를 나타내는 ‘주로, 크게, 특히’ 등도 부스터 표현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추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다. 우선 이러한 분석 기준을 먼저 적용해 보고 분석 진행 중에 나타나는 양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16) 분석에 사용된 용어 중 일부는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자기 투영 복합 구성 → 투영 동사 복합 구성’

IV.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표 9>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모두 4개 항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슬비(2016)의 분석 기준을 중심으로 이준호(2012) 등의 학습자 인식 및 자료를 비교하면서 결과를 분석하는데, 실제 학습자의 인식이나 산출물을 연구 결과물을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는 결국 학습자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학술적 텍스트의 산출이므로 기존에 연구된 것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결과 분석에 타당하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산출한 논설문 40편을 대상으로 총 753 문장, 27,671 어절 중에서 4 종류의 헤지 표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각 절에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¹⁷⁾

4.1. 투영 동사

선행 연구들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투영 동사가 오로지 ‘생각하다’만 나타났다. 이준호(2012)에서도 ‘생각하다’는 ‘동사 중심 표현’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의 항목으로 선택되었고, 이슬비(2016)에서도 ‘보다, 생각하다, 보이다, 생각되다, 파악되다, 파악하다’ 외의 순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특히 이준호(2012:293)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와 같이 투영 동사 앞에 명사화가 필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9), (10)과 같이 ‘-다고/라고 생각하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슬비(2016:150)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이 명사화가 필요한 표현, ‘-(으)로, -(으)ㄴ’ 등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학습자들은 명사화가 필요한 서술어를 사용할 때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단,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양이 적으므로 더 많은 양으로 분석한 후에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술적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투영 동사에 대해 배웠고 연습 때에도 ‘생각하다’ 외에 다른 동사들을 사용하였으나 분석 자료로 활용한 시험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마 격식적으로 새롭게 배운 형태보다

17) 본 연구에 실는 학습자 예문은 수정 없이 그대로 옮긴다. 본 연구는 언어적으로 완성된 학습자의 쓰기 산출물에 나타난 내용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의 오류 또는 중간언어적 산출 자체가 본 연구에서 살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익숙하게 쓰던 형태로 감점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0〉 투영 동사 헤지 표현 사용 양상

구분	개별 헤지 표현	빈도(회) (27,671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¹⁸⁾
투영 동사	생각하다	33	1192.6

(9) 두 번째 세상에 모든 생명이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CHN02)

(10) 나는 동물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 한다고 생각한다. (CHN04)

(11) 가. 그러나 그 실험은 우리 위해 중요한 것 있는 것 라는 생각하다. (JPN01)

나. 그렇게 동물 실험을 너무 나빠고 무서운 것을 생각한다. (CHN09)

다. 그래서 저는 동물 실험이 해야 하는 생각이다. (CHN12)

또한 (11)의 예문들과 같이 투영 동사 사용의 중간언어적 양상도 찾을 수 있다. 인용조사를 채 익히지 못했거나 서술어 형태가 아니라 명사 형태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생각’이라는 어근 앞에 인용 조사 ‘-고’의 형태 또는 어근 뒤에 ‘하다’ 접사를 붙이기 전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4.2. 투영 동사 복합 형식

본 연구에서는 ‘-(으)ㄴ 수 있을 것이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라고 본다, -을/를 알 수 있다’ 등이 사용되었다. 이슬비(2016)에서는 학습자의 투영 동사 복합 형식 중 ‘-을/를 알 수 있다 > -다/라고 할 수 있다 > -(으)ㄴ 수 있을 것이다 > -다/라고 본다’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앞 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명사화 표현이 필요한 헤지 표현은 많이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18) 옆 칸의 ‘빈도’는 학습자 자료에서 27,671 어절에서 나타난 산출 횟수이고 ‘100만 어절 환산 빈도’는 실제 산출 횟수와 비교를 통하여 나타낸 수치이다. 실제 산출 자료의 양이 유의미하게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산하여 비교한다.

19) 함께 비교하는 연구인 이준호(2012)에서는 본 연구와 이슬비(2016)와 같이 복합 형식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은 다음 절인 ‘4.3. 인식 양태 표현’에서 함께 다룬다.

〈표 11〉 투영 동사 복합 구성 헤지 표현 사용 양상

구분	개별 헤지 표현	빈도(회) (27,671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투영 동사 복합 구성	-(으)ㄴ 수 있을 것이다	10	361.4
	-다/라고 본다	4	144.6
	-을/를 알 수 있다	3	108.4
	-다/라고 말할 수 있다	2	72.3
	-다/라고 보인다	1	36.1
	-(으)ㄴ 수 없을 것이다	1	
	-을/를 알 수 없다	1	

- (12) 가. 동물 실험에 실험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장단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MNG01)
 나. 그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은 사회에게 많은 위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CHN24)
- (13) 가. 사람이 죽으면 동물보다 큰 문제 될 수도 있다고 본다. (CHN11)
 나. ... 먼저 사람에게 이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다. (CAM03)
- (14) 약이나 화장품의 특성과 용양을 정확하게 안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 수 있다. (CHN05)
- (15) 가. ... 연구나 실험하는 것은 이것이랑 같은 의미 라고 말할 수 있다. (JPN01)
 나. ...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동물 실험이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KGZ01)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산출되지 않았는데 ‘-다/라고 말할 수 있다’의 형태로 산출한 학습자가 2명 있었고 이러한 문장을 각각 1개씩 산출하였다. ‘보다/보이다’가 그러하듯이 Halliday의 ‘protection(투영)’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말하다’도 필자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나는 투영 동사로 볼 수 있다.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의미라고 보인다’ 등으로 바뀌어도 의미 변화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4.3. 인식 양태 표현

학습자는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기 위한 양태 표현으로 ‘-(으)ㄴ 수 있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으)ㄴ 것이다, -(으)ㄴ 수 없다’ 등을 사용하였다. 명제 내용의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 표현으로 ‘-(으)ㄴ 수 있다’를 많이

선택한 것이다.

이슬비(2016)에서는 ‘는 것이다 > -(으)ㄴ 수 있다 > -(으)ㄴ 것이다’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는 것이다’의 분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헤지 표현으로 분류한 ‘는 것이다’를 부스터 표현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3.3’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 태도를 약화시켜 텍스트의 내용을 비단언적으로 표현하는 헤지 표현과 필자 태도를 강하게 표현하는 부스터는 각기 다른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므로 당연히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16) 그래서 이런 공손하지 못한 그런 문법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를 청자 지향 제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문법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바로 청자에게, 청자와의 관계에 있는 거죠.

(장아남 2022:235)

‘는 것이다’는 선행 문장 또는 선행절의 내용에 확신을 가지는 부스터 표현으로서 ‘즉’ 등의 무엇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바로’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부사와도 잘 어울린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헤지 표현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표현을 제외하고 ‘-(으)ㄴ 것이다’는 헤지 표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으)ㄴ 수 있다’가 많이 사용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필자의 주제 이해도 및 주제 자체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슬비(2016:40)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 과제이므로 필자인 학습자들이 선택한 주제로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글을 서술할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연구 참여자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언어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교양 과목의 시험 상황이었고 주제도 교수자가 지정하여 시험 당일 처음 보는 주제였으므로 관련 주제의 정확한 지식보다 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표 12〉 인식 양태 헤지 표현 사용 양상

구분	개별 헤지 표현	빈도(회) (27,671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인식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	89	3216.4
	-(으)ㄴ 것이다	32	1156.4
	-(으)ㄴ 수 없다	24	867.3
	-(으)ㄴ 수도 있다	8	289.1
	듯하다	1	36.1
	만하다	1	

(17) 사람들은 동물의 어떤 우량한 특징을 이용하고 우리 주변의 생활 환경 또는 우리 지구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CHN15)

(18) 세상에 사람이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JPN05)

(19) 미래에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함께 지구에서 행복하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CHN24)

(20) 동물 실험할 때 불량상황이나 부장용이 너무 심하면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 (CHN20)

(21) 부작용이 생긴다면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고 하여 기술을 통해 그 동물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CHN11)

‘-(으)ㄴ 수 있다’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초기에 배우는 문형이기도 하고 ‘가능성, 추측’ 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문형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으)ㄴ 것이다’ 형태는 교재 또는 기관마다 다르겠으나 보통 한국어 학습 초급 후반 중급 초반에 ‘반말’을 배우면서 구분하게 되는 문형이다. 한국어 학습은 구어에서 문어로 진행되는데 ‘-(으)ㄴ 거예요’를 초급 초기에 먼저 배우고 후에 ‘-(으)ㄴ 것이다’를 배우기 때문에 반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게 된다. 따라서 ‘-(으)ㄴ 것이다’는 문어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나아가 격식적 구어에서는 ‘-(으)ㄴ 것입니다, -(으)ㄴ 겁니다’를 사용하는 것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국어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공부했다면 수준별, 체계적으로 학습이 되므로 문어적 표현을 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있어서는 문맥적으로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준호(2012:280-281)에서도 ‘-(으)ㄴ 수 있다, -(으)ㄴ 것이다’가 각각 70%, 60%로 해당 연구에서는 높은 비율로 학습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를 전성어미 ‘ㄴ’에서 찾고 있다. 그는 문형에 이것이 포함될 경우 미래 혹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헤지 표현을 선택할 때에도 쉽게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4. 시상 표현

학습자들은 시상 표현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고 있다 > -아/어지다 > -게 되다’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결과도 이슬비(2016:154-155)와 유사한데 그는 학습자들이 과거 사실을 보고 중심으로 기술하기 때문이며 현재 시제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논증 과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학습자와

한국인의 텍스트를 비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텍스트에서는 ‘-고 있다 > -았/었- > -던 > -게 되다’의 순으로 나타나 학습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았/었-’을 쓰는 경우와 과거의 중단 또는 미완을 나타내는 ‘-던’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양상은 다른데 그 부분에서 두 그룹은 차이를 보였다.

〈표 13〉 시상 헤지 표현 사용 양상

구분	개별 헤지 표현	빈도(회) (27,671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시상 표현	-았/었-	36	1301.0
	-고 있다	30	1084.2
	-아/어지다	29	1048.0
	-게 되다	18	650.5
	-아/어 있다	2	72.3
	-던	1	36.1
	-았/었던	1	

(22) 동물 실험중에서 얼마나 동물은 그 실험 때문에 자기 생명이 없고 고통에서 죽었다. (CHN03)

(23)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이나 화장품을 생성할 때에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 (CHN06)

(24) 그렇게 보면 동물 시험을 진행하는 것의 좋은 점을 밝혀지고 있다. (CHN15)

(25) 실험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으며 동물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JPN05)

본 연구에서도 ‘-던, -았/었던’이 사용되었으나 각 1회에 그쳐 다양한 과거의 양상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형의 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주제가 이 해당 문형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틀릴까 봐 미리 문형 사용을 회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4.5. 기타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적 모습을 보이는 예문들을 보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류를 나타냈는지 생각해 보고 어떠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6) 가. 그렇게 동물 실험을 너무 나빠고 무서운 것을 생각한다(✓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CHN09)

나. 저는 동물 실험을 해야 하는 생각이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HN10)

다. ... 동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게 안 된다고 생각이다(✓안 된다고 생각한다). (CHN19)

(26)의 예문들은 ‘-다고/라고 생각하다’의 문형에 나타난 오류들이다. 인용조사를 잘 사용하지 못했거나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 후에 바로 명사가 붙어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텍스트 안에서 사용되는 모습은 적절해 보이므로 형태적인 부분만 강화하면 문형의 정확성 지도를 통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27) 가. 그러므로 동물들이 불상하다는 우려가 없어질 수도 된다(✓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지도 모른다). (CHN04)

나. ... 원래 있던 모습을 찾기 어렵고 동물도 없어질 수도 모른다(✓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지도 모른다). (CHN11)

(27)은 ‘-(으)ㄴ 수 있다, -(으)ㄴ 수도 있다’ 등의 문형 또는 ‘-(으)ㄴ지도 모른다’의 문형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복합 형식(chunk)의 조합을 어려워하여 오류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미를 헷갈리거나 문형의 형태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로 보인다.

(28) 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만드는 약이나 화장품 또 다른 먹는 거나 쓰는 것이 많아질 것 같다(✓많아질 것이다). (CHN04)

나. 미래에 경제와 기술을 발달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기 바란다(✓찾아야 한다, 찾아야 할 것이다, 찾는 것이 좋다). (CHN17)

다. 이렇게 하면 동물들도 많이 죽지 않고 사람들은 동물 실험을 더 찬성할겠다(✓찬성할 것이다, 찬성하게 될 것이다). (CHN10)

(28)은 격식적 글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으)ㄴ 것 같다, -기 바란다, -겠-’의 사용을 나타낸 것이다. 학습자들은 추측 표현으로 ‘-(으)ㄴ 것 같다’ 문형을 초급에서부터 배우는데 문어와 구어의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면 격식적 문어에 이러한 문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기 바라다’ 형태도 학습자들이 많이 쓰는 희망 표현 중의 하나인데 ‘-(으)면 좋겠어요’의 희망, 바람을 나타내는 문형을 급수가 올라가고 문체가 바뀔 때 보통 ‘-기 바라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겠-’도 추측을 나타내는 문형으로 초급에서부터 배운다. 즉 (28)에 제시된 예문들은 문어와 구어에 적합한 문형 선택에 실패하여 나타난 양상이라고 보이며 문체에 따른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9) 가. 최근 다양한 약 및 화장품이 판매하게 되고 있다(✓판매되고 있다). (JPN04)

나. 동물은 말을 못 하지만 생각도 우리가 알 수 못 하지만(✓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CHN21)

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로 실험을 하는 것이 필요 있다고(✓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CHN23)

(29가)의 서술어가 피동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의 조사가 ‘이/가’이기 때문이다. ‘판매되다’를 써야 하는데 ‘판매하게 되다’와 ‘-고 있다’를 함께 쓰고 있어 오류문이 되었다. 이것도 여러 문형을 복합적으로 쓸 때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29나)의 형태도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인데 ‘-(으)ㄴ 수 있다/없다’와 ‘-지 못하다’의 형태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29다)는 매우 많은 학습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명사와 접사가 붙은 ‘필요하다, 중요하다’와 같은 형용사 단어와 ‘공부하다, 사랑하다’와 같은 동사 단어의 혼동이 그것이다. 품사에 따른 혼동으로 인한 오류는 많은 한국어교육 선행연구에서도 보이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확하게 품사를 인식하고 시제에 맞게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던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에 헤지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서 출발하였다.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의 산출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살펴보면서 중간언어적 형태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헤지 표현 중 인식적 태도와 관련된 표현들을 ① 투영 동사, ② 투영 동사 복합 구성, ③ 인식 양태 표현, ④ 시상 표현’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실제 학습자 논설문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① 투영 동사’ 헤지 표현은 선행연구들에서보다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사화가 필요한 서술어 사용 시 오류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은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② 투영 동사 복합 구성’ 헤지 표현은 선행연구에서는 보이지 않은 필자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나는 투영 동사 ‘말하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③ 인식 양태 표현’ 헤지 표현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으)ㄴ 수 있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선행연구들에서 혼재된 의미로 사용된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을 나누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④ 시상 표현’ 헤지 표현은 ‘-았/었- > -고 있다 > -아/어지다 > -게 되다’의 순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과거 사실 기술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더 많은 학습자의 자료를 통해 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후속 과제로 남는다. 기존의 다수 연구들에서는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여 단순히 필자의 태도를 나타냈으나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결국 목표어의 담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적은 수의 자료 분석, 학습자 모국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에 이를 더 보완할 것이다. 또한 문어에서도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가진 텍스트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구어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덧붙여 언어권별, 성별 등을 고려한 분석, 격식적, 비격식적 상황에서의 담화 텍스트도 충분히 분석해 볼 만하다.



- 강수진·이미혜. 2019. “유학생 학위논문에서의 헤지 표현 사용 연구: 한국어 교육 전공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23(5), 478-486.
- 김강희. 2017. “헤지 문법 항목으로서의 ‘고요’, ‘거든요’, ‘는데요’ 연구.” 『언어학연구』 0(44), 35-51.
- 김설연·이엽. 2022. “한중 라이브 커머스에서 나타난 헤지 표현 및 부스터 표현의 사용 양상 연구.” 『반교어문학회』 0(61), 105-130.
- 류지현. 2019. “한국어 헤지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미영. 2016. “말뭉치 기반 연구 방법을 사용한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헤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이미혜. 2018.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의 고빈도 헤지 표현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외국어교육)』, 25(3), 225-246.
- 신명선. 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151-180.
- 신영주. 2011. “한국어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호연. 2013. “한국인과 유학생의 학위논문 결과: 논 의 부분에 나타난 완화표지 사용 양상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인박·김한근. 2022. “한국어 헤지 표현의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구 목적별 경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76, 129-167.
- 윤나영. 2022. “한국어 안내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연구.” 『한국어와 문화』 32, 161-182.
- 이슬비. 2016.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아름. 2018.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헤지(Hedge) 표현 제시 방안.”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8(9), 119-140.
- 이엽·JIN XUEYAN. 2022. “학술지 논문에 나타난 중국어권 학습자의 헤지 표현 사용

- 양상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3(3), 167-205.
- 이준호. 2012.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 선정 연구.” 『이중언어학』 49, 269-297.
 - 임진숙. 2021. “한국어 안내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연구: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2(3), 87-113.
 - 장아남. 2021. “한국어 학술텍스트의 부스터 표현 사용 양상 연구: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2(2), 261-283.
 - 장아남. 2022. “학술대회 논문발표 담화에 나타난 한국어 입장 표현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33(3), 207-242.
 - 조은영·총니. 2022. “중국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특징과 모국어 쓰기 특징 비교 연구.” 『문화와 융합』 44(5), 75-98.
 - 하완. 2021.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헤지(hedge) 표현 제시 양상 분석 연구: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를 대상으로.” 『한국어문교육』 35, 327-360.
 - 한강우. 2022.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54번 문항 답안 작성 방안 연구: 글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4), 201-233.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Fraser, B. 1975. Hedged performatives, i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speech acts*(187-210). New York: Harcourt Brace and Jovanovich.
 - Fraser, B. 1980. “Conversational mitigation,” *Journal of Pragmatics* 4(4), 341-350.
 - Hübler, A. 1983. *Understatements and hedges in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 Hyland, K. 1996. “Writing without conviction? Hedging in scientific research articles.” *Applied Linguistics* 17(4), 433-454.
 - Hyland, K. 1998. “Boosting, hedging and the negotiation of academic knowledge.” *Text* 18(3), 349-382.
 - Hyland, K. 2005. “Stance and engagement: a model of interaction in academic discourse.” *Discourse Studies* 7, 173-192.
 - Lakoff, G. 1973.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ss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 458-508.

- Markkannen, R. & Schröder, H. 1997. Hedging: A challenge for pragmatics and discourse analys in R. Markkannen & H. Schröder (Eds), *Hedging and Discourse*(3-18). Walter de Gruyter.
- Prince, E. F. & Frader, J. & Bosk, C. 1982. On hedging in physician-physician discourse". in R. J. Di Pierto, (Ed.), *Linguistics and the professions*(83-97). Norwood, N. J.: Ablex.

● 투고일: 2022.12.26. ● 심사일: 2023.01.25. ● 게재확정일: 2023.02.20.

| Abstract |

A Study on the Hedges of Foreign Students' Persuasive Writing

CHOI Boseon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 of hedges in a persuasive writing by foreign undergraduate students studying at universities in Korea and to find educational implications. In addition,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hedges shown in prior studies are summarized. And it was started to supplement two parts that appeared almost in common in prior studies. First, the studies on hedg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ed on analyzing academic text of graduate students, but the studies on hedges in various writing of various learners is needed. Second, there are many studies that do not distinguish between hedges and boosters, but the functions of each expression are different, so it must be distinguished.

In this study, the hedges in the persuasive writing was divided into four parts: 'projective verbs, composite forms of projective verbs, epistemic modality expressions, tense-aspect expressions', and the pattern of foreign students' use of hedges and interlanguag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ior studies, and the recognition of hedges and actual output of foreign students were compared to discuss future educational measures.

<Key words> Hedges, Boosters, Epistemic Modality, Persuasive Writing, Academic text,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